

# Richard Somers의 “Thought-Adventure”

—D.H.Lawrence의 *Kangaroo* 연구—

김 현 숙

## 1. *Kangaroo*를 보는 시각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들 중에서 이제 D.H. Lawrence는 빼놓을 수 없는 확고한 위치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세계는 당대의 두드러진 문학현상, 즉 James Joyce, T.S. Eliot 등이 대표하며 그후의 문학의 주제나 형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모더니즘(modernism)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Lawrence의 작품의 성격을 보거나 그의 소설에 대한 발언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런 결론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Lawrence의 소설은 20세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산물로서 새로운 도덕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의 소설의 형식이나 주제는 모더니즘의 세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며 보다 전통적인 영역에 가깝다는 것이다. Lawrence가 소설을 빨리 써낸다는 점과도 관련해서 그의 소설의 형식이 치밀하지 못할 뿐더러 그가 아예 소설의 예술적 형식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비난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Lawrence에 대한 이런 비평은 그의 어떤 면을 간과하거나 혹은 고의로 무시함으로써 고조된 듯한 인상을 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당대의 다른 소설가들에게서는 모더니즘적이라는 이유로 이해 받고 있는 요소가 Lawrence의 소설에 나타날 때에는 Lawrence의 비예술적인 면을 증거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점이다. 그것은 평자들이, Lawrence는 보다 전통적인 기법을 택하고 있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당시의 모더니즘 소설을 극력 비판한 Lawrence의 높은 목소리를 의식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Lawrence는 새로운 소설인 모더니즘 소설을 비판하는 한편 자기 소설의 새로움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자들이 인식하지 못한 Lawrence의 새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할 때 Lawrence 소설의 형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며 현대 소설가로서의 Lawrence의 참모습과 그의 소설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Lawrence는 상당히 많은 글에서 소설의 가치와 형식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설의 혁명적인 성격을 주장하고 있다. Lawrence는 *The Rainbow*의 전신인 *The Wedding Ring*을 쓰는 도중 Edward Garnet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은 종전과는 “다른” 소설을 쓰겠다고 하면서 “인물의 느낌(what she feels)”이 아닌 “인물의 본질(what she is)”을 다루겠다<sup>1)</sup>고 한다. 이 말의 참 뜻은 당시의 유행소설에 대한 Lawrence의 비판과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데, 종래의 소설들은 인물의 표면적인 느낌만 전부인양 나타내고 있으나 자신은 그런 차원을 포함하되 인간 본연의 모습까지도 드러내 주는 형식을 택하겠다는 의도를

1) To Edward Garnett, 5 June, 1914,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ed. H.T. Moore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2), pp. 281-282 참조. 이후 편지는 년 월 일만 표시.

나타낸 것이다. 또한 1923년에서 25년에 걸쳐 쓴, 소설에 대한 많은 에세이 중 “Surgery for the Novel...or a Bomb”에서 Lawrence는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다.<sup>2)</sup> 그는 당대의 소설을, 내면적인 탐구에 치중한 James Joyce류의 소위 “본격 소설 (serious novel)”과 전통적인 평면적 기법을 사용하는 “대중 소설 (popular novel)”로 나누어, 전자는 “낡은 자리에 새 감정을 만들어 내는” “망령든 조숙”의 증상이며, 후자는 “과거와 현재에 대해 훌쩍거리며” “자기 환상”에 빠져 있으므로 둘 다가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순전히 감정적이고 자기 분석적인 묘기”는 완전히 버리고 인간의 복합적인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을 쓰겠다는 것이다. 물론 Lawrence의 이런 말들은 그의 소설 속에서 확인되고 검증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특히 Lawrence가 말하는 “새로움”이 그의 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Kangaroo*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Kangaroo*는 Lawrence의 실패작으로 여겨지며 소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여행기 정도로 인정되어 왔으나 근래에 Alastair Niven이나 John Worthen 등의 비평작업을 통해 그 의의가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특히 John Worthen은 이 소설이 무시되어온 이유는 Lawrence의 현대적인 면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Kangaroo*에 대한 평가를 새로이 하고 있다. 사실, *Kangaroo*를 쓴 후 몇 년간 소설에 대한 에세이가 많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에세이들에서 정리되어 있는 Lawrence의 생각들은 *Kangaroo*를 쓰는 과정에서 실험되고 정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독자들을 당혹케 한 특이한 형식이나, *Kangaroo*의 약점으로 비판받는 여러 요소가 사실은 *Kangaroo*의 새로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Lawrence는 *Kangaroo*에 의식적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Kangaroo*의 형식은 그 주제를 가장 잘 나타내기 위한 고의적인 실험의 결과라는 점을 살펴 보면서, 그를 통해 Lawrence에 대한 이해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 2. *Kangaroo*의 실험성

Graham Hough가 *Kangaroo*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파악되지는 않는 류의 숨겨진 통일성”<sup>3)</sup>을 보이고 있다면서 긍정적 평가의 여지를 다소 남겨두는 평을 한 이래로 *Kangaroo*에 대한 비평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Eliseo Vivas는, *Kangaroo*의 에피소드들에는 “진정한 극적인 의미”가 없으며 소설의 구조도 “조직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다가 “비소설 (no-novel)”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4)</sup> R.P. Draper 역시 “사이비 소설 (pseudo-novel)”<sup>5)</sup>로 규정짓고 있으며 Harry T. Moore는, Carlyle이나 Nietzsche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Kangaroo*도 소설로 생각할 수 없다<sup>6)</sup>고 한다. *Kangaroo*의 형식에 대한

2) D.H. Lawrence, “Surgery for the Novel...or a Bomb,” *Phoenix*, ed. Edward McDonal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6), pp. 519-520. 참조.

3) Graham Hough,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1956; rpt. New York: Octagon Books, 1973), p. 103 참조.

4) Eliseo Vivas, *D.H. Lawrence: The failure and the triumph of ar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0), pp. 37-62 참조.

5) R.P. Draper, *D.H. Lawrence* (1964; rpt.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p. 88 참조.

6) Harry T. Moore, *The Life and Works of D.H. Lawre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1), p. 218 참조.

이런 비판은 내용에 대한 비판과도 연결되어 있다. Eliseo Vivas는 *Kangaroo*를 Lawrence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설<sup>7)</sup>로 보고 있으며 Frank Kermode는 “놀라운 정도로 적나라한 자기 초상이며, 사실과,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꺼리낌 없는 환상의 기록”<sup>8)</sup>이라는 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들이 일반적인 평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Kangaroo*는 Lawrence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상태에서 독자와 소설에 대한 믿음마저 상실한 채 쓴 소설<sup>9)</sup>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Kangaroo*가 인간과 소설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냐는 문제이다. *Kangaroo*는 1923년 4월에 시작해 그 해 6월에 끝마쳤으며 마지막 장은 9월에 다시 쓴 것이다. 이렇게 *Kangaroo*가 6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의 허술함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실은 *Kangaroo*의 원고에는 상당히 교정을 많이 한 증거가 있고, Lawrence 스스로도 “나는 *Kangaroo*를 끝냈습니다. 많이 고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마지막 장을 새로 썼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서 좋습니다”(1922년 10월 6일자)라고 하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Lawrence는 *Kangaroo*의 혁명성을 인식하고는 “광기서린 소설”(1922년 6월 9일자)이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토록 많은 일이 일어나야 하는 우스운 소설”(1922년 6월 22일자)이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James Joyce를 의식하는 듯 “굉장한 소설이야! *Ulysses*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이 책에는 침을 뱉을 것입니다.”(1922년 7월 9일자)라고도 한다. Lawrence 자신도 의식하고 있는 이런 새로움이 독자나 비평가에게는 당연히 당혹감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당혹감이 이 소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Kangaroo*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소설의 중간에서 Lawrence는 인간과 소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Man is a thought-adventurer. Man is more, he is a life-adventurer. Which means he is a thought-adventurer, an emotion-adventurer, and a discoverer of himself and of the outer universe. A discoverer...

Now a novel is supposed to be a mere record of emotion-adventures, floundering in feelings. We insist that a novel is, or should be, also a thought-adventure, if it is to be anything at all complete.<sup>10)</sup>

소설의 곳곳에서 Lawrence는 이와 같은 작가의 소리를 통해 자기가 어떤 소설을 쓰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려고 하는지를 이해시키려 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Lawrence는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소설이라는 장르에서 인물의 감정의 흐름 뿐만 아니라 사고의 흐름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 Eliseo Vivas, p. 41 참조.

8) Frank Kermode, *Lawrence* (1973; rpt. Collins: Fontana, 1979), p. 99.

9) Keith Sagar, *The Art of D.H. Lawre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 136 참조.

10) D.H. Lawrence, *Kangaroo* (1923;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0), pp. 307-308. 이후로는 페이지단 표시함.

따라서 *Kangaroo*에서 Lawrence는, “감정의 모험가(emotion-adventurer)”이며 또한 “사고의 모험가(thought-adventurer)”, 곧 “인생의 모험가(life-adventurer)”로서의 Somers를 실감있게 나타내기 위해 종래의 평면적인 서술을 포기하고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

Somers는 사고의 모험을 통해 삶의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한편, 독자는 Somers의 경험을 다루는 *Kangaroo*의 다양한 도전에 부딪치면서 나름대로의 사고의 모험을 겪게 된다. *Kangaroo*에서 제기되는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주로 Somers의 경험과 사색을 통해 탐구되고 있는데 Somers의 사색은 그의 경험을 뒷받침해 주는 면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부정하기도 한다. 또한 Somers는 삶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곧 그런 자신을 경멸하기도 하며, 이런 갈등 속에서 Somers는 조금씩 삶에 대한 인식에서 발전한다. 따라서 독자는 이처럼 때로는 모순적인 Somers의 다양한 면모를 종합해서 이해하도록 요구되므로 독자 역시 사고의 모험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Kangaroo*는 독자의 창조적 역할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형식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Lawrence는 Australia의 생활상과 자연, 이웃과의 교체등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의 재능을 다시금 돋보이게 하면서, Somers의 사고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치 옛세이에서와 같은 문체를 쓰고 있다. Jack이나 *Kangaroo*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때문에 Harriet와 심각한 갈등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런 사색을 통해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들을 거부해 버리는 Somers를 변덕스럽고 일관성이 없는 인물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서 감정적인 끌림과 진지한 사색을 되풀이 하면서 미래의 삶을 열망하면서도 때로는 지치고, 반항하는 한 인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우리가 보는 Somers는 어느 한 순간의 고정된 인물이 아니라 생 그 자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로 상치되는 요소들(contradictions)”을 갖춘 Somers를 제대로 그리기 위해 Lawrence는 여러가지 기법을 고루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예술성의 부족으로 비판되어 온 요소들은 “상황을 정직하게 인식해 보려는 다소 처절한 추구”<sup>11)</sup>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Kangaroo*에서 나타난 다양한 감정과 그에 따라 달라지는 문체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혼란을 느껴서, 또 너무나 탐구적이어서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식으로는 쓸 수 없는 작가”<sup>12)</sup>로서의 Lawrence를 보여 주는 것이다. Lawrence 자신은 이런 과정을 “장 다음에 장이 따라 오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p. 312)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다. 이 말을 지적하면서 Frank Kermode는, Lawrence 스스로가 *Kangaroo*는 그때 그때의 자신의 의견과 환상을 기록한 것임을 자인했다<sup>13)</sup>고 지적한다. 그러나 행동이나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색의 과정 역시 “감격적”이라는 말이 곧 뒤따라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위의 말은 Lawrence가 자신의 소설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사고의 모험은 인간의 필수적인 한 요소이며 또한 그것이 소설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Lawrence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I am sorry to have to stand, a sorry sight, preening my wings on the brink of the ointment-pot, thought Richard. But from this vantage ground let me preach to myself. He preached, and the

11) John Worthen, *D.H. Lawrence and the Idea of the Novel*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9), p. 144.

12) Alastair Niven, *D.H. Lawrence: The Nove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p. 144.

13) Frank Kermode, p. 100 참조.

record. was taken down for this gramophone of a novel. (p. 309)

Lawrence는 또한 “화산 폭발의 증거 (Volcanic Evidence)”와 조각들(Bits)”이라는 장에서 신문의 잡다한 기사를 그대로 옮겨 실는 모자이크 식의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Eliseo Vivas는 “메워넣기(padding)”<sup>14)</sup>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실상 이 의미없는 신문 기사들이야말로 Somers가 비판해 온 Australia의 공허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Bits, bits, bits. Yet Richard Lovat read on. It was not mere anecdotage. It was the sheer momentaneous life of the continent. There was no consecutive thread. Only the laconic courage of experience. (p. 300)

사실성이 풍부한 여러 장면의 묘사와 더불어 마치 평론같은 서술이 여러 차례 섞여 있는 *Kangaroo*의 형식에 어리둥절했던 독자는 이제 토막 토막 나열되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군 소리가 많고 구성이 형편없다는 비난을 들은 이 소설이, “일관된 실”이 없는 Australia의 공허함과 혼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Kangaroo*의 새로운 기법이나 다양한 문체를 통해 Lawrence는 Australia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실상과 인간의 총체적 모습을 지극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여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Worthen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what has so frequently been taken as a self-indulgent narrative chattiness in *Kangaroo* is, I suggest, a deliberate attempt to be honest and dear and truthful beyond the limitations of such self-consciousness and such moralizing.... The narrative voice of *Kangaroo* aims to be both popular and serious, unpretentious and enquiring.<sup>15)</sup>

그 결과 *Kangaroo*는 지극히 현대적이면서도 모더니스트 소설과는 의식적으로 다르며 그 자체로서 실험적인 소설이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실험적 형식을 통해 Lawrence가 추구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가 *Kangaroo*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시도가 소설이라는 양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한 것이라면 그 과정을 통해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다.

### 3. Somers의 “Thought-Adventure”

*Kangaroo*의 내용은 간단히 요약된다. 영국과 유럽에 절망한 채 여행을 떠난 Richard Lovat Somers와 Harriet는 Italy, China, India를 거쳐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Australia에 머물기로 한다. Somers는 Australia라는 새롭고 거대한 땅에는 매력을 느끼지만 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나 사람들의 삶에는 계속 불만을 느낀다. 이웃과의 친교를 거부하고 고립되기를 바라는 Somers의 바램과는 달리, 그와 Harriet는 Jack Calcott 내외와 사귀게 되며 “제향군인회(Diggers Club)”의 일원인 Jack을 통해 *Kangaroo*라는 별명을 지닌 Benjamin Cooley와 만나게 되어 Australia의 중심문제에 깊이 관련된다. Somers는 또한 사회당의 지도자격인 Willie Strether와도 만나게 되는데, 그와 *Kangaroo*로부터 그들

14) Eliseo Vivas, p. 37.

15) John Worthen, p. 140.

의 동지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각각 받으나 결국 Somers는 모두 거절한다. Somers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암흑의 신(dark god)”에 대한 믿음을 발전시킨다. 갈등이 고조되던 Strether파와 Kangaroo파 사이에 마침내 폭동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Kangaroo는 저격을 받아 죽게 되며, Somers는 “암흑의 신”에 대한 믿음을 간직한 채 미국을 향해 떠난다.

Somers와 Harriet는 여러 면에서 Birkin과 Ursula의 연장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Women in Love*의 마지막에서 Birkin이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랑, 즉 한 남자와의 영원한 결합도 원했오”<sup>16)</sup>라고 하여 Ursula와의 사이에 제기되었던 갈등은 Somers와 Harriet 사이에도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Somers는 Birkin과 다른 점도 많다. Somers가 만나게 되는 Jack, Kangaroo, Strether 등은 Birkin이 Gerald Critch에게서 구하려 했던 그런 동지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Somers는 이를 기꺼이 받아 들이는 대신 망설이다가 거부해 버린다. 즉 Somers와 Birkin 사이에는 전쟁이라는 큰 경험이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Somers의 생각은 Birkin과는 상당한 거리가 생기게 된 것이다. Somers의 변모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악몽(The Nightmare)”이라는 소재목이 붙어있는 제12장인데, Somers가 Kangaroo의 제의를 거절한 후, Kangaroo의 갑작스런 변모에 공포를 느끼며 전쟁을 회상하는 부분이다. 이 장은 특히 그 부적합성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Graham Hough는 이 장을 이야기의 진행에 완전히 부적절한 것<sup>17)</sup>으로 여기며 Sagar 역시 Lawrence의 작가로서의 무능력을 드러내주는 실례<sup>18)</sup>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Moore의 지적처럼, 이 장이 없으면 *Kangaroo*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없을 뿐더러 Somers의 태도를 적절히 이해하기도 어렵다.<sup>19)</sup> 이 장이 없으면 소설은 “혼란스러워지며 부정적으로 된다”<sup>20)</sup>고 여겨도 타당할 것이다.

“악몽”이라는 장에는 Lawrence의 전시의 경험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다. 독일인 아내 Frieda 때문에 간첩으로 오인받으면서 계속 감시를 받고, 계속되는 징병검사에서 느낀 수치감과 굴욕감이 거의 그대로 Somers의 경험으로 변형되어서 상당히 고조된 어조로 그려져 있다. 이렇게 Somers가 전쟁이 주는 압박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Graham Hough는 Lawrence가 전쟁에 참가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그대로 전이시켜 놓은 것<sup>21)</sup>이라고 하면서 그런 Lawrence의 태도는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The horrors of war cannot be indicted by hysterical sulking and screaming. There is no moral basis for Somer's indignation.<sup>22)</sup>

그러나 Somers는 전쟁에 대해 도덕적 기반이 없이 순수한 개인적인 분노를 느낀다기 보다는 오히려 철저히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Somers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어느 편이 정

16) D.H. Lawrence, *Women in Love* (1921;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7), p. 541.

17) Graham Hough, p. 104 참조.

18) Keith Sagar, p. 133 참조.

19) H. T. Moore, p. 217 참조.

20) Alastair Niven, p. 151 참조.

21) Graham Hough, p. 115 참조.

22) *Ibid.*, p. 114.

당하며 어느 쪽에 참가하는 것이 보다 옳은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은 바로 인간성이 최악으로 타락해 있다는 산 증거가 되는 셈이며 따라서 Somers는 인간에 대한 모든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나 모든것, 사회, 사랑, 친구를 그토록 믿었던”(p. 273) Somers는 이제 마치 자신이 살해당하고 일종의 “사후 상태”에 있는듯이 느끼며, 그것은 그에게는 “빈음의 심각한 죽음”(p. 274)을 의미한다. Somers는 물론 현실적으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또한 자신의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의사들의 상황도 이해한다. 그러나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은 그 자체가 타락한 인간성에 의해 만들어졌으면서 또한 인간의 인간됨을 말살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괴물이다. Somers는 전시의 영국에서 “죄를 지은 대중과 죄를 지은 정부에 대한 두려움”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군중과 함께 사냥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독립적인 영혼을 파괴하려고”(p. 235)한다고 여긴다.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은 군중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진실과 정의, 인간의 명예를 저버리고, 무섭고 더러운 사냥개처럼 더러운 턱에서 침을 흘리며 큰 소리로 짖어야만 하는”(pp. 235~236) 상황에서 Somers는 군중의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끝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를 혼자 설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질적인 진리, 본질적인 명예, 본질적인 정의에 대한 그의 감각”(p. 236)이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 한 몫을 거들기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와 반대쪽인 “양심적인 참전 거부자”가 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 역시 자신이 승복할 수 없는 “전쟁의 전체 정신, 즉 거대한 군중정신”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전쟁이 일으킨 여러 파장은 진정한 개인의 자아를 말살시키고자 끊임없이 위협해 오는 것이며 Somers의 이에 대한 반항은 어떠한 위협에도 “그 자신의 구심성”과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 속에 자신의 남자다운 고립”을 지키겠다는 노력의 소산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악몽”이라는 장이 Somers의 현재의 태도를 적절하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소설 전체의 맥을 암시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Somers가 자유로운 나라이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Australia에서 과거의 전쟁시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 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더구나 사랑을 힘주어 말하는 Kangaroo에게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게 되는 이유는, 이 곳에서 인간마다의 참된자아를 말살시키는 “대중정신”의 소산을 보기 때문이다. Jack이나 Kangaroo가 Somers에게서 우정을 거부당하자 즉시 그를 위협하는 존재로 변하는데서, 결국 Kangaroo의 죽음을 야기시키는 두 파의 소동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셈이다. Australia의 민주주의는 전쟁과는 아주 다른 형태이기는 하나 마찬가지로 개인의 개인됨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Australia의 문제는 곧 물질 만능과 기계 만능을 통해 발전을 구가하는 듯 하나 사실은 인간답게 사는 길을 위협하는 현대세계 전체의 분체와 연결되는 것이다.

Mary Freeman은 논증을 통해 재향군인회와 사회주의자들의 대립이 실은 Italy의 상황임을 밝히고 있다.<sup>23)</sup> 또 Kangaroo에서 증시되는 것은 두 파 간의 정치적인 대립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이다. 그래서 두 당의 지도자들인 Kangaroo와 Strether는 그들의 당의 정치

23) Mary Freeman, *D.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New York: Grosset & Dunlap, 1955), pp. 163-165 참조.

적인 정당성 보다는 개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Somers에게 호소하고 있다. Lawrence도 일단 Australia라는 구체적인 장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Poor Richard Lovat wearied himself to death struggling with the problem of himself, and calling it Australia. There was no actual need for him to struggle with Australia: (p. 33)

따라서 Australia는 Lawrence에게는 “내적인 곤경을 인식할 수 있는 다행스러운 기회”이며 *Kangaroo*는 “자야로의 여행”<sup>24)</sup>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 Lawrence의 “내적인 곤경”은 어떤 종류의 것일까? Somers는 “나는 세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가가 되고 싶습니다.”(p. 226)라고 한다. 그러나 에세이 작가 Somers는 혼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소설가 Lawrence는 혼자일 수 없다. 소설을 쓰는 행위 자체가 대중을 의식하는 작업이므로 Somers가 자신의 문제라고 부르는 Australia가 소설의 독자에게는 Somers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Lawrence도 의식했을 것이다. 작가 Lawrence와 Somers는 결코 동일 인물이 아니며 소설가 Lawrence는 자기가 상대하는 독자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있는 Somers가 Australia로 이름붙인 자신의 문제는 그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인 현대세계에 대한 꿈과 절망을 대표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Australia의 큰 문제는 민주주의로 나타난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보자고 하는 인류의 이상이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Lawrence의 비판은 그의 파시즘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Lawrence는 그의 에세이 “Democracy”에서도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살펴 보면 Lawrence가 비판하는 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도 부정되어야 할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Lawrence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평등이 인간 삶의 물질적인 면에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And the Average Man just represents what all men need and desire, physically, functionally, materially, and socially. *Materially* need: that's the point. The Average Man is the standard of material need in the human being.

Please keep out of all Spiritual and Mystical needs. They have nothing to do with the Average. You cannot Average such things.<sup>25)</sup>

즉 Lawrence는 인간이 함께 살아 가려면 부의 평등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서 정해지는 “평균”은 “실제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에 한정되어야지 그것이 인간의 정신의 영역에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는 “평균”이 아닌 “특수성” “개별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따라서 각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살아야 한다<sup>26)</sup>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삶에 대한 Lawrence의 그와 같은 시각은 *Kangaroo*에서 소설이라는 장르의

24) John Worthen, p.145.

25) D.H. Lawrence, “Democracy,” *Phoenix*, p. 701.

26) *Ibid.*, pp.702-709 참조.

특성에 힘입어 극화되어 있다. “부의 엄청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진짜 민주주의”(p.27)가 Australia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Somers의 말은, 실제로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평등이라는 원리를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까지 적용시켜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려는 Australia의 민주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따라서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욕구만 있을 뿐 개인의 정신적인 차이는 평등이라는 허울로 무시해 버리는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 준다.

There was really no class distinction. There was a difference of money and of 'smartness.' But nobody felt *better* than anybody else, or higher; only better-off. And there i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between feeling *better* than your fellow man, and merely feeling better-off. (p. 27)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개인의 개인됨은 무시되고 각 개인은 “텅 비어” 있는 욕수수대처럼 자기의 중심 자아를 상실한채, 진정한 욕구나 충동이 없이 단지 공허감을 메꾸기 위한 “홍분거리”만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내적인 의미”가 없는 “무책임한 자유”일 따름이다. Somers는 Kangaroo에게 Australia인들의 결함을 이야기 하면서 그러한 상태에서 Kangaroo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지적한다.

'They're nice. But they haven't got the last everlasting central bit of soul, solitary soul, that makes a man himself. The central bit of himself. They all merge to the outside, away from the centre. And what can you do, *permanently*, with such people? You can have a fine corn-stalls blaze. But as for anything permanent—' (p. 147)

그리고 이런 비판은 바로 현대인 전부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wrence가 지적하는 것처럼,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물질적 평등의 가능성을 구가하면서도 실상 물질적 불균형은 더욱 커지는 한편, 허울좋은 평등은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으로 넘겨져서 개인의 개인됨을 말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가 그에 대응되는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역시 인간의 개별성을 무시한 채 물질의 균등한 분배만 주장하기 때문이다. Somers는 Australia의 이런 상황을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한 상태”(p. 288)로 생각한다. 자아를 상실하고 공허한 상태를 강요당한 사람들의 가슴속에서 “복수”의 외침이 터져 나오리라는 것을 예감하기 때문인데 마지막에 미친듯한 소동이 벌어지는 것으로 그 예감은 적중되고 만다.

현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신념을 잃은 Somers는 Jack이나 Kangaroo가 제시하는 동지애에 새로운 희망을 품는다. Jack은 평범한 제대군인으로 남자답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Australia인들 처럼 자신의 자아를 찾지 못한 채 내부의 “텅 빈 공간”을 채워 줄 홍분거리를 찾는 “천박한” 인물이다. 그가 Somers에게 소개하는 비밀결사대인 “재향군인회”는 Jack과 같은 퇴역군인들이 모여 체력을 연마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있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또 그만큼 위험스런 존재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개인적으로는 충성스럽고 무의미하게 용감하며 방향도 없이 반항하며 사회적으로는 무식하면서”,<sup>27)</sup> “홍분거리”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Somers는 Jack이나 “재향군인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만큼 처음에는 자신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Jack의 제의에 꽤

27) Mary Freeman, p. 161.

히 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차 Jack에게 이끌리며 그를 통해 Kangaroo를 만나게 되는데 Somers의 이런 애매한 태도의 저의는 Harriet과의 갈등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Because I feel I *must* fight out something with mankind yet. I haven't finished with my fellow-men. I've got a struggle with them yet.'

'But what struggle? What's the good? What's the point of your struggle? And what's your struggle for?'

'I don't know. But it's inside me, and I haven't finished yet. To make some kind of an opening—some kind of a way for the afterwards.' (p. 77)

Somers는 Harriet가 “그들이 진짜 사나이들이라면 나도 말리지는 않겠다”(p. 78)라고 비판할 때 그녀의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 그러나 Somers는 자기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를 바라는 욕구가 워낙 강렬하므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엿보게 될 때 그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Jack이 제시하려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이 추구해 오던 것과 비슷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Jack은 Somers에게 서로를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맹목적인 우정을 맺기를 요구한다. Somers는 이미 Jack이 “광신적인”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자신은 그와 “동지”(pal)가 되고 싶지는 않으면서도 막상 Jack의 제안을 받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David-Jonathan식의 우정을 위해 왔던가를 상기하면서 Jack의 요구에 끌린다. 그러나 한편 Somers의 보다 솔직하고 깊숙한 자아가 Jack의 요구를 곧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 막는다. Somers는 이러한 동지애(companionship)의 패러디<sup>28)</sup>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동지애의 부정적인 단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각 개인이 보다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면서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이 동지를 사랑하게 될 때 오히려 서로를 “때려 부수게”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그는 갖고 있었다. 그런데 Jack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때 그것이 의식화되어 Somers 자신에게도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It took Lovart Somers some time before he would really admit and accept this new fact. Not till he had striven hard with his soul did he come to see the angel in the way; not till his soul, like Balaam's Ass, had spoken more than once. And then, when forced to admit, it was a revolution in his mind. He had all his life had this craving for an absolute friend, a David to his Jonathan, Pylades to his Orestes: a blood-brother. All his life he had secretly grieved over his friendlessness. And now at last, when it really offered—and it had offered twice before, since he had left Europe—he didn't want it, and he realized that in his innermost soul he had never wanted it. (p. 119)

Somers는 “애정, 사랑, 동지애” 대신 “어떤 생생한 친교(*some living fellowship*)를 맺음으로써 “지배의 신비”(p. 120)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관계를 원한다. 그러한 바램을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Lawrence의 욕망을 나타낸 것이라거나 참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파시즘적인 태도라고 여길 수는 없다. 앞에서 논의한 민주주의에 대한 Lawrence의 태도에서도 분

28) Alastair Niven, p. 148 참조.

명히 알 수 있거니와 그가 원하는 것이 “어떤 자의적인 계급이나 출생적 귀족주의”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Lawrence가 원하는 것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에서 무시되고 있는 “(각개인의) 차이와, 타고난 우월성에 대한 신비로운 인식, 복종의 기쁨과, 권위에 대한 신성한 책임”(p. 120)을 인정해 줌으로써 자아를 잃어 버린 채 공허함만 남은 “뜨겁고 비좁은 관계”를 청산하고 인간의 보다 깊은 내부로부터의 참된 교류를 이루자는 것이다.

Somers가 Kangaroo를 만나게 되는 것은 위와 같이 스스로의 자세를 선명하게 한 이후이다. Kangaroo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 그는 “순수히 사심없을 수 있는 능력”과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따뜻한 사랑”, “본질적인 친절”을 갖고 있는 사랑의 화신이다. 그러데 Kangaroo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허용하지 않으며, 마치 “여호와 처럼” 인간이 그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는 “그 생물을 지극히 가차없이 파괴하는” 성격이다. 그러나 Kangaroo가 사랑을 주장할 때 Somers는 일단 그에게 끌리게 된다. 더구나 Kangaroo의 논리는 Somers 자신의 에세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Lawrence의 에세이 “The Crown”에서 이야기하는 바와도 비슷하다.) 따라서 Somers는 Kangaroo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게 반응한다. Kangaroo에 대한 태도는 과거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Somers는 Kangaroo의 말을 들으면서 일단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의 간단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그에게 자신을 말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Somers는 Kangaroo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그의 외모가 아름다우나 “여전히 캥거루의 얼굴”(p. 121)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Kangaroo에게 반대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Strether를 만난 후 다시 Kangaroo를 방문했을 때 Somers는 “사랑이라는 유일한 불”만 믿는 Kangaroo의 사랑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한다.

‘I know your love, Kangaroo. Working everything from the spirit, from the head. You work the lower self as an instrument of the spirit. Now it is time for the spirit to leave us again; it is time for the Son of Man to depart, and leave us dark, in front of the unspoken God: who is just beyond the dark threshold of the lower self, my lower self. There is a great God on the threshold of my lower self, whom I fear while he is my glory. And the spirit goes out like a spent candle. (p. 151)

Somers가 비판하고 있는 Kangaroo의 부정적인 사랑이 Lawrence가 추구해 왔던 사랑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Lawrence는 Kangaroo류의 정신적인 사랑을 항상 경계하면서 인간의 보다 깊은 본능을 중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 또 남성과 남성 사이의 사랑을 계속 추구해 오던 Lawrence는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사랑이 부정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Kangaroo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Lawrence는 자신의 소설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sup>29)</sup>게 아니라, 작중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과거의 모습까지도 비판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 “삶의 탐구자”로서의 인물들을 통해 작가도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작업은 소설이라는 장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Lawrence는 독자에게도 그의 소설에서 “어떤 것도 못박으려”<sup>30)</sup> 하지 말고 소설의 경험을 가슴으로 느껴 주기를 요구하는 소설을 쓰

29) Eliseo Vivas, p. 59 참조.

30) D.H. Lawrence, “Morality and the Novel,” *Phoenix*, p. 528.

고 있다고 하겠다. John Worthen도 *Kangaroo*의 이러한 성격을 올바르게 지적하고 있다.

*Kangaroo* challenges us with our own desire to nail things down and say what is really important in our experience. But every nail of authorial philosophy—and every truth of local experience—is tested both by the novel and by Somers; and every nail which Somers tries to drive into the novel as something sure and tested—his loyalty to the working class, for instance—is in its turn walked away with by his actual and contradictory experience.<sup>31)</sup>

Somers는 또 다른 정치 집단인 사회당의 우두머리인 Willie Strether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유머와 부드러움이 결합되어 있는 Lincoln 같으며, 의심스럽고 속에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는 등 부정적인 묘사로 소개된다. Strether 역시 *Kangaroo*처럼 자기 당의 대표자로 나타나기 보다는 개인적인 가치로 Somers에게 호소를 해 온다. 그가 제안하는 “동지에 대한 신뢰가 깃든 남자의 사랑”(p. 219)은 *Kangaroo*가 주장하던 사랑과 별로 다르지도 않은 것이며 Somers가 계속 추구해 오던 “남성간의 진정한 결합”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Somers는 Strether의 제안도 일단 고려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Somers는, Strether가 주장하는 “진정한 형제애의 유대감” 역시 “하나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Kangaroo*의 “절대적 사랑”과 마찬가지로 자아를 함몰시켜 버릴 위험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 Strether 역시 거부해 버린다. 이처럼 Somers는 여러 만남 속에서 점차 자신에 내재해 있던 진정한 욕구를 인식하게 되며 그것은 곧 “암흑의 신”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된다.

#### 4. 결 론

이상과 같이 살펴 보았을 때 Somers가 궁극적으로 *Kangaroo*나 Strether를 거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Somers의 태도이다. Somers는 애초에 Jack의 인간됨이 보잘것 없다는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에게 끌리고, *Kangaroo*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를 거부하고 오히려 Strether의 집회가 더 현실적이라며 그곳에 참가한다. 이렇게 언뜻 봐서 모순되는 Somers의 태도는 그때 그때의 작가의 기분에 따라 달라진다고 오해되는 면이 많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Lawrence는 “삶의 탐구자”로서의 Somers를 통해, “절대적 자아”에 대한 믿음을 가진채, 상대적이며 “부름과 응답(Call and Answer)”의 관계인 인생에 반응해 나가는 인간을 보여 주고 있다 Somers는 옛 세이치처럼 보이는 몇개의 장에서 삶에 대한 진지하고 힘든 추구를 하나 곧 그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 “그는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교의 모험가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일종의 피의 어둠 속으로 떠다니기를 더 좋아했다.”(p. 264)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바이올린의 E선처럼 긴장상태에 있을 수는 없다”(p. 312)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Somers는 끝내 사교의 모험을 계속하며 자기의 진정한 충동을 확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Somers의 복잡한 인간됨은 주변인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Harrie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Somers와 Harriet의 갈등은 Lawrence가 거의 언제나 의식하고 있는 남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것으로 이런 갈등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31) John Worthen, p. 144.

또한 Somers를 보는 독자의 시각을 다각화시켜 주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Harriet는 Don Quixote를 따라 다니는 Sancho Panza 처럼 Lawrence의 주인공을 따라 다니는 “건전한 목소리”<sup>32)</sup>라고 할 수 있다. Harriet는 자신과 만족스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자와의 결합에 연연해 하는 Somers에게 불만을 갖고서 그가 상대하려는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들이라면서 비웃는다. 또한 정치가 무용하다던 Somers의 과거의 말들을 이용해서 Somers를 공격하기도 한다. Harriet의 비판이 상당히 타당하다는 것을 Somers도 인정하며 그녀의 비판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rs는 끝내 자신의 길을 고집한다. 비록 Harriet의 반박이 옳은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녀는 Somers의 삶에 대한 노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므로 Somers는 그녀의 비판에 굴복할 수가 없는 것이다.

Lawrence는 Somers의 삶을 통해 현대의 삶을 검증해 가면서, 삶을 긍정하려는 성향이 유난히 강하며 삶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부정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sup>33)</sup> Kangaroo와 Strether를 거부하는 가운데 분명해지는 것은 “암흑의 신”에 대한 믿음이다. Somers는 Australia인들의 “찌찌함”에는 실망했지만, 처음부터 그 장대한 자연 속에서 어떤 숨은 힘을 인식하고 처음에는 그것에 공포를 느끼지만 점차 “암흑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그것은 Somers 자신에게도 아직은 명확히 인식되지 않는, “말로 할 수 없는 살아 있는 어떤 것”이며 “그가 산고를 겪어 마침내 그것을 말로, 행동으로, 존재로 끄집어 내어야 하는 태아”(p. 294)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개별 자아의 진정한 욕구와 충동에 충실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암흑의 신”에 대해 Somers 자신도 막연하게 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사회를 재구성”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라기 보다는 “삶에 대한 새로운 종교적 태도”<sup>34)</sup>와 관련된다는 것이다. *The Plumed Serpent*에서 Lawrence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 보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점도 있다고 하겠다.

Somers의 삶에 대한 이런 추구 과정을 살펴 볼 때 작가 Lawrence가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Australia를 떠나면서 Somers는 부두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테이프를 끝까지 쥐고 있으면서 인간과의 끈질긴 유대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더욱이 흔히 비판되는 것과는 달리 Lawrence는 문명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Somers의 다음 말에서도 알 수 있다.

‘I won’t give up the flag of our real civilized consciousness. I’ll give up the ideals. But not the aware, self-responsible, deep consciousness that we’ve gained...’ (p. 383)

‘... Well, I’m the enemy of this machine civilization and this ideal civilization. But I’m not the enemy of the deep, self-responsible consciousness in man, which is what I mean by civilization. In that sense of civilization I’d fight forever for the flag, and try to carry it on into deeper, darker places. It’s an adventures, Jaz, like any other. And when you realize what you’re doing, it’s perhaps the best adventure.’ (p. 383)

32) Mary Freeman, p. 163.

33) F.R. Leavis, *D.H. Lawrence: Novelist* (1955;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8), p. 32 참조.

34) John Worthen, p. 148.

따라서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진 Lawrence는 *Kangaroo*에서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다기 보다는, 보다 더 깊이 있는 표현 형식을 찾아서 독자에게 삶의 보다 다양한 파장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References

- Lawrence, D.H. *Women in Love*. 1921;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7.
- Kangaroo*. 1923;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80.
- Phoenix*. Ed. Edward D. McDonal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6.
- Draper, R.P. *D.H. Lawrence*. 1964; rpt. The Macmillan Press Ltd., 1976.
- Freeman, Mary. *D.H. Lawrence: A Basic Study of His Ideas*. New York: Grosset & Dunlap, 1955.
- Hough, Graham.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1956; rpt. New York: Octagon Books, 1973.
- Kermode, Frank. *Lawrence*. 1973; rpt. Collins: Fontana, 1979.
- Leavis, F.R. *D.H. Lawrence: Novelist*. 1955; rpt. Harmondsworth, Middlesex: Penguin Books, 1978.
- Moore, H.T. *The life and Works of D.H. Lawre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1.
- Moore, H.T. Ed. *The Collected Letters*. 2vs.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2.
- Niven, Alastair. *D.H. Lawrence: The Novel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 Pritchard, R.E. *D.H. Lawrence: Body of Darkness*.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71.
- Sagar, Keith. *The Art of D.H. Lawre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Vivas, Eliseo. *D.H. Lawrence: The failure and the triumph of ar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0.
- Worthen, John. *D.H. Lawrence and the Idea of the Novel*. London and Basingstoke: The Macmillan Press Ltd., 1979.